

# 독립정신

45호 2009년 5.6월호

이 달의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0주년 기념  
해방정국의 김구 활동과 그 의미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이 시대 진정한 독립정신의 파수꾼”

이 달의 독립운동  
반민특위의 좌절과 현재적 의미



특별기획

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가  
꿈꾸던  
자유국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상한

독립국가의 경제



독립정신  
사진으로 보는



이시우 - 사진작가

## 모스크바 크레믈린

1922년 한국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된 극동민족대회 현장은  
현대식건물로 바뀌어 건물 안을 들여다 볼 수도,  
밖을 비추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유리면에서 하나가 되듯,  
나와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망막을 얻을 때  
새로운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 삼팔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작자 : 김구(1876-1949)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삼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 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통분투하는 것 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삼팔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인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1948.2.13 [삼천만 동포에게 읊고함]

2009 5\*6

통권 45호

#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최악의 남북관계, 임정의 경험에서 배우자  
| 신명식



06 이 달의 독립운동가  
해방정국의 김구 활동과 그 의미 | 정해규



12 이 달의 독립운동  
반민특위의 좌절과 현재적 의미 | 허종

18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상한 독립국가의 경제 | 정태현  
이제는 큰 호흡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이두엽

29 독립정신 산행기  
기축년 독립정신 산악회 시산제(始山祭)를 다녀와서  
| 주세영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준수, 김지용, 신명식,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1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호남호녀 | 이두희



35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 임헌영 민족문제 연구소장  
 이 시대 진정한 독립정신의 파수꾼  
 | 조영빈 조정의

39 청년특집\_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Ⅲ  
 | 정승임 홍용희



43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47 임정서가  
 아시아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는다

# 최악의 남북관계, 일정의 경험에서 배우자



신명식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

북한이 인공위성(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남북 관계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지만 직접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무기개발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권 때는 6자회담에 나선 남측 협상대표들이 “미국과 직접대화에만 매달리지 마라. 동포인 남측 위상을 올려 줘야 북측에 유리하다”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제무대에 나가서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한다. 과정이 어찌됐든지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북측의 교조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편들 생각은 없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란 상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상대를 인정하고 양보해야 대화 가능

60년 동안 이념을 달리해 온 체제가 대화를 하고 나아가 통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분위기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좌우대립을 극복한 소중한 유산을 남겨줬다.

1919년 4월 13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랫동안 국가의 기본인 행정부, 의회, 군대를 갖추지 못했다. 양자강 이남에 모여 있던 불과 수천 명이 수십 개 정당으로 나뉘어 있었다. 10명이 모이면 새 정당을 만들었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이후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37년 8월 17일 우파진영은 백범 김 구 등이 이끌던 한국국민당을 중심으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광복진선)' 라는 연합체를 결성한다. 그해 11월 좌파진영은 약산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민족전선)' 을 결성한다. 그러나 좌파세력들은 임시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관주의' 를 고수했다. 1939년 5월 두 사람은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성명서' 를 통해 단일당 구성을 결의한다. 이어서 8월 쓰촨성(四川省) 치장(綦江)에서 7당통일대회, 5당통일대회를 열지만 좌파정당의 이탈로 단일당 건설은 실패한다.

1940년 4월 13일 임정 주석, 의정원 의장을 지낸 석오 이동녕이 별세하자 그의 유언을 받들어 5월 우파 3당이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고 백범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행정 의회 군 모두 좌우합작 성공

1941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건국원칙을 밝힌 '대한민국 건국강령' 을 제정 공포한다. 좌우합작 이념을 반영해서 정치 경제 교육 평등의 3균주의를 바탕으로 삼은 강령이다.

다음해인 1942년 4월 20일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광복군과 조선의용대의 통합을 결의한다. 그해 7월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에 취임한다. 같은 해 10월 제34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좌파진영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다. 김규식 장건상은 국무위원에 합류한다. 김규식은 이후 부주석으로 선출된다. 이로서 임정은 좌우연립내각, 단일한 무장 대오와 함께 여당 한독당, 제1야당 민족혁명당이라는 명실상부한 좌우합작체제를 갖추게 된다. 임정은 좌우 진영은 물론 중도, 무정부주의자에게도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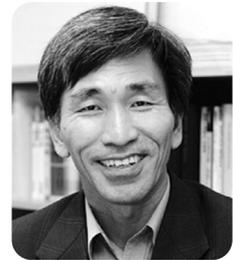
좌우합작의 성사는 백범의 지도력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산세력의 이탈과 조선의용대 주력의 화북지역 이동으로 힘이 많이 약화됐다고는 하지만 항일투쟁 내내 민족협동전선 노선을 지켜온 김원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해방 후에도 김 구, 김규식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1948년 5월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를 열었다.

임시정부내 좌우세력은 이처럼 오랜 세월을 걸쳐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독립을 쟁취할 힘을 키워나갔고,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도 했다. 하물며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60년 분단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이 이념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다. 이념 장벽을 넘어 나라의 힘을 키우고 통일로 가기 위한 노력, 이것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이다. ☺

## 해방정국의

# 김구 활동과 그 의미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27년만의 환국

1945년 11월 23일 김구를 비롯하여 김규식과 이시영 등 임시정부 요인들이 1차로 입국했다. 김구로서는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해로 망명한지 무려 27년만의 귀국이였다. 이어 12월 2일에는 나머지 임정 요인들도 입국했다. 그러나 임정 요인들의 입국은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졌다. 일제 패망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이 임시정부를 정부로서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였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오랜 기간 동안 임시정부를 이끌어왔던 그들이었지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올 당시 그들은 하나의 정치그룹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임정 요인들이 환국했던 11월 말과 12월 초는 8월 15일 해방으로부터 이미 세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른 때였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판도는 이미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좌파세력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한편 인민위원회를 구축하고 각 부문 단체들을 결성해나감으로써 그 전국적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미군의 진주에 앞서, 이미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이라는 정부조직을 급조해낸 바 있었다. 우파세력 역시 미군정의 지원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주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민당이 이미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고,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가 결성되고 있었다.

좌우세력이 등장했던 해방정국 초기의 이 같은 상황에서 좌우간에 통일전선이 모색되기도 했다. 인공과 독촉을 중심으로 모색되었던 통일전선 시도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주도권 행사를 전제로 했던 그 시도들은 제대로 성사되기 어려웠다. 바로 그 무렵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했는데, 좌파세력은 국외세력을 대표하는 임정과 국내세력을 대표하는 인공 사이의 통일전선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구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임정세력의 운신 폭이 크지 않고 그 주도권 행사가 마땅치 않던 현실에서 사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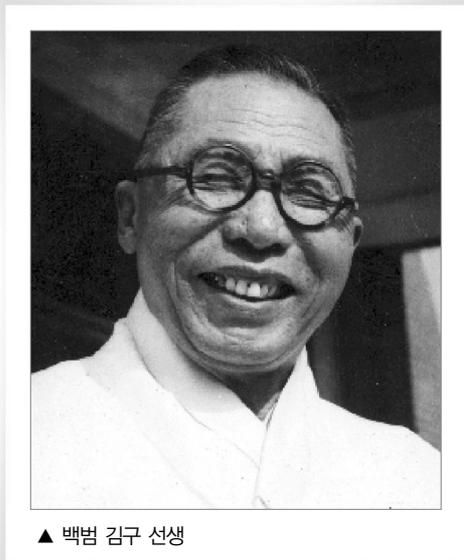
### 반탁운동의 전개

1945년이 끝나가던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임시정부와 협의하여 5년 기한으로 연합국이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정부수립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환국 후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보여왔던 김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던 것은 바로 이 때였다. 임정세력을 중심으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 즉각적인 반탁운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탁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전개되었다. 당연히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오리라 믿었던 국민들에게 연합국에 의한 신탁통치는 또 한 번의 외세 지배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탁통치안을 소련이 주도했다는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신탁통치안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에 의해 반탁운동은 반소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이 같은 반탁운동에 즈음하여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는 군정청 관리들의 총사직과 전 국민의 총파업을 요구했다.

이처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대해 김구가 전면적인 반탁운동에 나섰던 것은 해방된 마당에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구의 전면적인 반





▲ 1948년 4월 22일 남북연석회의에서 축사하는 백범 김구 선생

탁운동에는 이를 통해 임정을 정부로서 내세우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탁운동은 좌우세력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우파세력은 반탁운동에 참여했던 반면, 신탁통치를 ‘후견’으로 해석했던 좌파세력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총체적으로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해방정국의 좌우 갈등은 찬반탁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무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따라 1946년 3월부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미소의 입장 차이와 좌우세력 간의 정당사회단체 지분문제로 제1차 미소공위는 결국 결렬되었다. 임시정부 수립의 구체안을 마련해야 할 제1차 미소공위의 결렬은 임시정부 수립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 성향의 여운형은 미소공위 결렬 직후인 5월부터 좌우합작을 시작했다. 좌우합작을 통해 미소공위를 성공시킴으로써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후 좌우합작운동은 미군정의 지원 속에서 10월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좌우합작 위원들은 관선위원으로 여기에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미소공위 성공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 시도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소간 냉전이 점차 강화되

고 있었던 가운데 1947년 5월 다시 개최되었던 제2차 미소공위도 결국 결렬되기에 이르렀고, 그런 와중에 좌우합작의 한 주역이었던 여운형도 7월에 암살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소공위가 개최되고 좌우합작이 모색되었던 이 기간 동안 김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반탁이었다. 그런 만큼 좌우합작에 대한 그의 입장은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바탕으로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파진영의 주요한 한 축으로 활동했다. 물론 이승만과 한민당의 우파 활동은 분단정부의 수립까지 감수하는 것이었고 김구의 우파 활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직 남북 분단의 상황이 전면화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반탁운동을 동참했던 그들간의 입장 차이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 남북협상의 추진

제2차 미소공위가 최종적으로 결렬됨으로써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은 이제 그 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한국문제는 미국 주도로 유엔에 이관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요식적 행위라 할 수 있었다. 우선 유엔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안이 예상처럼 소련과 북한에 의해 거부되자 유엔 소총회는 1948년 2월 26일 유엔임시한위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즉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했다.

남북 분단이 현실화된 이 같이 변화된 상황에서 김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승만과 한민당과 더불어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이에 반대할 것인지를 선택이 그것이었다. 결국 김구는 남한 단선단정에 반대하고 남북 분단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협상의 길을 선택했다. 물론 당시 남북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구는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분단을 저지하기 남북협상의 마지막 노력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남북 분단의 상황이 명확해졌던 제2차 미소공위의 결렬 이후 북한 역시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 대비는 다음과 같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북한정부 수립 준비였다. 다른 하나는 남한 단선단정 반대투쟁이었는데, 그것은 남로당 중심의 직접적인 반대투쟁과 북한 주도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물론 후자의 연석회의의 추진은 차후 북한에 수립될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김구와 김규식의 남북협상 시도와 북한의 연석회의의 개최 의도가 맞아떨어졌던 상황에서 1948년 4월 남북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회의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19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되었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이며, 다른 하나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즉 남북요인회담이었다. 전자가 주로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후자는 남측 남북협상파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회담 결과 남북요인회담은 4개항에 걸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외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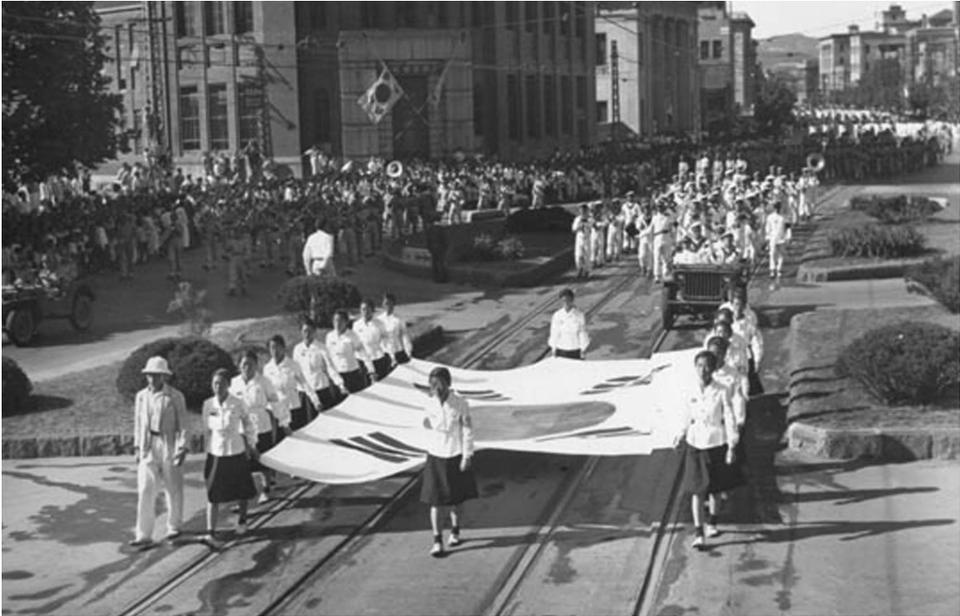
▲ 백범 김구 선생이 업무를 보던 경교장

의 즉각적인 동시 철수, 외군 철수 하의 내전 금지, 외군 철수 하의 정부 수립, 그리고 남한 단선단정 불인정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성명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단독선거가 강행되었다. 그 결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협상파의 김구와 김규식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에 뒤이어 9월 9일에는 북한 역시 그들만의 정부,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결국 1945년 해방 당시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남북 분단정부의 수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 해방정국 김구 활동의 평가

남북한에 분단정부가 들어선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949년 6월 6일 김구는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다. 일제의 끈질긴 탄압도 버티어냈던 그였지만 정작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해방 후, 그것도 대한민국의 육군 포병소위에 의한 것이었다. 여운형의 암살이 그러했듯, 그리고 한국전쟁 중 김규식의 죽음도 이 그러했듯, 일생에 걸쳐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해방 이후에는 남북 분단을 저지하고자 했던 애국 정치인



▲ 백범 김구 선생의 마지막 길

들의 삶은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났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정국의 김구 활동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김구는 기본적으로 우파 정치인이라 할 수 있었다. 일제 때 그의 독립운동 행보가 그러했고, 해방 후 반탁운동의 궤적도 그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현실에 즈음하여 이를 적극 수용했던 이승만과 한민당의 우파세력과 달리, 김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줄 알면서도 그는 남북협상의 길에 나섰다. 그런 점에서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애국자였다.

물론 해방정국의 활동에 있어 김구의 반탁운동과 남북협상은 논리상 모순적이다. 반탁운동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무산시켜 결국 남북 분단의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방정국에서의 그의 반탁운동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은 남북협상의 길이었다. 물론 그것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그의 사후 6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통일 한국의 꿈과 여망을 대변해주고 있다. (C)

# 반민특위의 좌절과 현재적 의미

허 종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올해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제2의 반민특위로 불리며 현재 활동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도 종료되는 해이다. 60년 전 반민특위는 친일파 처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체되었고,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기관의 활동 목적이 친일파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설치된 근본 취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반민특위가 활동할 때보다 더 나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일 뿐 절대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친일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한 친일인명사전의 발간 준비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간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 준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반민특위의 좌절로 설치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반민특위 좌절의 영향으로 좌초될 운명에 놓여있다. 결국 두 기관의 좌절 원인도 유사하며, 영향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한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 미군정, 친일파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다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은 미군정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자 친일파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눈에 띄는 친일파는 대중이 응징하였다. 이어 국가 건설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는 친일 세력을 참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대다수의 정치 단체와 사회 단체도 친일 세력의 처벌과 배제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해방 직후부터 친일 세력의 처리 문제가 핵심으로 떠 오른 이유는 친일 세력의 처리 문제가 반민족 행위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자주적인 통일국가 수립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미국·미군정은 한국을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일제의 지배 구조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기용하였다. 미군정은 친일파가 권력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입신양명을 보장받는다면 미국을 위해서도 충성을 바칠 것이라는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미군정의 이러한 정책으로 친일파가 군정 관리로 대거 기용되었다. 지금의 정부 장관과 처장급에 해당하는 군정청의 부장과 처장으로 기용된 대다수가 친일의 행적이 있었다. 이들은 일제시기에 반민족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일제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글을 신문과 잡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으며, 일부는 일제 관리를 지낸 경력이 있었다. 사법 분야에서도 대다수의 법원장과 절반 이상의 판사가 일제 시기 판·검사를 비롯한 사법 관료 출신이거나 친일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다. 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친일파의 재기용은 경찰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경찰 총수격인 경무국장에 기용된 조병옥은 일제의 침략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조병옥은 수도경찰청장으로 기용된 장택상과 함께 친일 경찰을 기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1946년 5월 무렵에 경찰 간부 1천여 명 가운데 9백여 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으며, 미군정기 동안에 기용된 대다수의 지방 경찰 총수도 일제 경찰을 비롯한 친일 경력이 있었다. 조선경비대의 간부 대다수도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 이처럼 미군정의 현상유지정책으로 친일 세력이 처단되기는커녕 일제 시기보다 지위가 오히려 상승하였다. 미군정의 친일파 기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친일파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1949년 5월 8일 대전부청에서 '민족정기단 충청남도 발단식' 을 마친후 기념촬영

미군정기에 친일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있었다.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친일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다. 이에 맞서 친일 세력은 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특별조례」제정에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미군정은 과도입법위원이 완전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며, 친일 세력은 전국을 통하여 같은 표준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미군정기에 친일 세력의 처리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 친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승만 정권이 방해하다

정부 수립 직후부터 친일파를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48년 5·10 선거에서 당선된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소장파 의원들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활개치고 있는 친일파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을 주도하였다. 제헌국회는 이승만 정권의 반대와 친일 세력의 방해 책동에도 불구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미국으로 도피를 꾀하고 있던 박

경찰은 미군정기 친일 경찰의 기용 실태와 다르지 않았으며,  
 군의 주요 간부도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헌병사령부에서 활동하면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홍식을 가장 먼저 체포하였다. 이어 적극적으로 반민특위 반대운동을 펼치던 이종형과 일본으로 도피를 꾀하고 있던 방의석·김태석·조병상 등을 잇달아 체포하였다. 반민특위는 1월말부터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거물급 친일파의 체포에 나섰다. 반민특위는 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활동했으며, 대표적인 친일파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활동은 부진했으며, ‘잠자는 반민특위’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활동 시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같은 해 8월에 반민특위는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로써 반민특위의 좌절은 물론 궁극적으로 친일파 처벌은 실패로 돌아갔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절된 원인은 크게 친일 세력의 권력화,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방해 책동, 반민특위 구성원과 운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친일 세력의 권력화를 보면, 반민특위가 활동하고 있을 무렵 행정부·사법부 등 권력의 요직에 친일 세력이 포진되어 있었다. 행정부의 고위직에 일제 관료를 지냈거나 친일 행적이 있는 자들이 많이 기용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심했다. 사법부에도 대법관·법원장의 대다수가 일제시기에 판·검사를 지냈으며, 독립운동가를 재판했던 인물도 있었다. 경찰은 미군정기 친일 경찰의 기용 실태와 다르지 않았으며, 군의 주요 간부도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헌병사령부에서 활동하면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파 기용은 미군정기에 친일파 처리입장을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더욱이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논의될 때 관리들이 동요하자, 친일파 처리가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라며 진정시켰다. 또한 반민특위의 친일 관리의 처리 요구를 거부했다. 나아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사실상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 반민특위로 압송되가는 친일인사

이승만 대통령의 태도에 고무되어 친일 세력은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찰과 군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친일 경찰이 주도한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 음모 사건, 소장파 의원을 제거하기 위해 경찰과 군이 합작하여 조작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민특위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어난 반민특위 사무실 앞 시위 사건과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소장파 의원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구 암살 사건 등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반민특위의 활동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결국에는 친일파 처벌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반민특위 구성원과 운영의 문제도 작용하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절된 원인에는 반민특위 구성원과 운영의 문제도 있었다. 반민특위 조사위원 중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자격 조건을 갖춘 인물도 있었지만, 미치지 못하는 조사위원들도 있었다. 더욱이 일제나 만주국 관리를 지낸 자가 조사관으로 기용되기도 했다. 또한 친일파와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 조사부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을 조사관으로 기용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자격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이 친일파의 체포에 주력하기보다는 이를 반대하거나 체포된 친일파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심지어 체포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 피신하게 함으로써 체포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조사관 중에도 친일파의 조사 서류를 빼돌리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있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어 파면되기도 했다.

반민특위 구성원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로 이어졌다. 친일파 처벌의 삼위일체인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는 초기에 연석회의를 가지고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나 친일파

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드러냈다. 세 기관은 서로 간에 혐의도 없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친일파를 보석으로 석방시키거나, 석방한 사실에 대해 서로 비방했다. 이 때문에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특별재판관이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친일 세력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활동이 날로 심해져 서로 협력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 기관의 대립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의 좌절은 친일 세력의 권력 구조화,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 문제와 세 기관의 갈등이 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이승만 정권과 친일 세력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준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 친일파 청산은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과제

친일파 청산의 실패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친일파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충성을 바치면서 독재정권의 영속을 추구했으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또한 처벌은커녕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 제 분야에서 지도층을 자처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케 했다. 아울러 친일 군인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에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등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식민지 전락과 분단, 이어지는 전쟁을 극복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을 주목하지만,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의식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 정리는 이와 같은 반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의 성찰과 관용을 키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역사에서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개인과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사 정리의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친일파 문제이다. 비록 친일파는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그릇된 유산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명하고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풀어야 할 몫이며,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전히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상한 독립국가의 경제



정태헌  
고려대 교수, 한국사

## 1. 통합성으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념의 높을 벗어나자

21세기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는 남북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평화적 공존과 공영을 위한 협력시대를 여는 방법론과 인식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임정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3.1운동이라는 거족적 민족운동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정)는 주도세력의 구성 면에서 초기부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연합전선으로 출발했다. 이후에도 임정은 연합전선의 성격이 강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활동성이 두드러졌으며 광복군 역시 그러한 조건 하에서 결성되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구성원의 삶과 의식을 옥죄었던 이념적 적대의식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 연구자조차 그 늪에서 헤어나는 방법론을 추구하기보다 거꾸로 그 늪에 얽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냉전시대의 이념적 잣대로 일제하 민족운동을 바라보는데 친

속하다.

그러나 식민지시대는 물론 해방 후 분단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도 개인이나 정치세력이 표방하거나 간직 하던 이른 바 이념이라는 것은, 현실의 사회 경제에 토대를 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나, 국가 주 권을 가진 상태에서 권력을 갖기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의 산물도 아니었다. 식민지 지배를 받는 현실에서 는 전혀 그럴 조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에 이념의 차이라는 것은 다분히 관념적이고 주관적일 소지가 컸고 현실에 조응하면서 가변성이 대단히 컸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표방한 이념을 절대불변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들이 표방되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절실하다.

분단과 전쟁, 대학살을 동반한 ‘반공’과 ‘반동’ 논리가 횡행하면서 적대적 이념대립으로 점철되었던 한 국 현대사를 돌아 볼 때, 이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 과제가 오늘까지 남겨져 있는 우리 역사는, 선택할 수 있었던 바람직한 길로 뚜렷한 기반 위에 엄존했던 통합(연합)전선의 실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임정을 재조명하는 것은 임정이라는 역사적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해방 전후 임정을 비롯한 국내외 민족운동 전선이나 정치세력 간 이념 대립의 정도가 이후 분단 과 전쟁을 불사할 만큼 적대감으로 가득 찬 것도,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념적 갈등이 있었다해도 현실적 조건 또는 그에 조응하는 체제가 갖춰진 조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 다. 미래에 대한 추상적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었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권력을 장악하기 위 해 부추긴 측면이 컸다. 물론 여기에는 외세 또한 크게 작용했다.

해방 전후사의 이면을 보면 분단과 전쟁을 피하고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경향이 분단국가 수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분단국가 수립 직후부터 각각의 집 권세력이 지향하는 이념이 바로 현실화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그만큼 비현실적이다. 분단 국가의 집권층과 구성원의 이념을 모은 헌법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명시하지 못한 것은 그 려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이었다.

근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인 이념적 갈등의 수준과 배경, 구체적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보거나 분단 또는 전쟁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인식은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 없다.

## 2. ‘이념’보다 식민지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구상

그러면 임정을 이끌어간 주체들은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을까?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원장 이동녕 등 8명의 명의로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은 전문 10조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공화제(제1조)에 의한 소유의 자유(제4조)를 밝히면서 아울러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 이 없는 일체 평등(제3조)을 주장했다. 1919년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법도 재산의 소유와 영업의

임정의 이러한 경제구상을 당시나 오늘날 익숙한 이념적 잣대나 개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러한 구상이 점차 구체성을 띠면서 해방 이후까지 줄곧 유지되면서 발전되어 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상황에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경제의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구체성이 점차 더해져 간 것이다.

자유(제8조)와 동시에 인민의 일체 평등(제4조)을 주장했다.

1910년대 말 임정의 주체들은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적 질서로 정착되어 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회를 구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전통사상을 이념화한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상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평등사회 인식은 임정으로 모인 주체들 중에는 러시아 동포들도 많았고 '사회주의 국가' 소련 수립이라는 외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임정의 이러한 경제구상을 당시나 오늘날 익숙한 이념적 잣대나 개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러한 구상이 점차 구체성을 띠고 해방 이후까지 줄곧 유지되면서 발전되어 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상황에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식민지경제의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구체성이 점차 더해져 간 것이다.

1927년 대한민국임시약헌에서 조국광복과 사회개혁이 명시된(4조) 이래 경제구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개혁을 규정한 것도 경제구상을 구체성 속에서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1931년 4월에는 임정의 건국원칙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의 삼균주의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삼균주의는 한 개인이 정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김규식, 안창호, 이청천 등에서부터 김원봉, 김두봉 등까지 민족운동전선의 주체들 사이에 폭넓게 수용된 사상으로 새로운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이념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1941년 11월 건국강령.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대한민국건국강령은 삼균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대생산기관의 공구 및 수단, 토지와 어업, 광업, 농업, 임업, 수리(水利), 연택(沿澤), 운수산업(수상, 공중, 육상),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 농공상기업은 국유로 한다.

- ② 국제무역, 전기, 대규모 인쇄 출판 전영(電影) 극장 등의 국유 국영으로 한다.
- ③ 소규모 또는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한다.
- ④ 토지 국유화에 의해 토지의 상속매매, 저압(抵押), 전당, 유증(遺贈) 고용농업제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 소비 및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정도 와 문화수준을 제고한다.

대생산기관 국유화, 중소기업 사영화, 토지의 국유화와 거래 금지 등 임정의 구체적인 경제개혁안은 김구와 합세하는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경제정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44년 4월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취학권, 취직권, 부양권, 파업권을 인정하는 일종의 ‘혼합경제체제’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냉전시대 들어 물과 기름처럼 구분되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의 선택적 개념으로 좁혀 이해하는 접근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사실은 그보다 식민지 지배 하의 피폐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구성원의 삶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 처방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민족운동전선 가운데 좌파세력의 경제 구상도 임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영(私營) 경제 일반에 대한 존중 원칙 아래 토지분배와 국유화 대상에 대해서만 대강을 설정하여 임정의 안보다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 운영을 강조했다. 조선독립동맹 강령의 경우 역시 일제의 모든 자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일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시키고 토지분배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 3. 민족운동전선의 국가건설 방략이 수렴된 배경과 의미

이처럼 해방 전후 국내외 민족운동전선이나 각 정치세력의 경제체제 구상은 좌우 또는 이념의 차이를 떠나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중요산업 국유화, 중소기업 활동의 보장, 그리고 방식은 달랐지만 농민 분배를 위한 토지개혁 등 기본 골격에서 질적 차이가 없었다. 임정은 각 민족운동전선의 국가건설 방략이 수렴되어 가는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두고 전통적인 이념 구분방식에 따라 사회민주주의 경향을 띤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당시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념의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경제구상은 국가가 없고 일본자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식민지자본주의 조선경제의 ‘현실’에 대한 판단에서 기인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즉 이념 차이와 무관

토지개혁 문제 역시 당시의 조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념적 잣대에 기울어지면 해방 당시에 지주들조차

토지개혁 흐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당시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민당도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유상매상 유상분배 원칙)을 주장했다.

하게 한반도의 국부를 일본인(자본)이 독점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 구상은 민족운동전선의 이른 바 이념 구분에 따라 질적 차이가 두드러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면 현실로 들어가 보자. 해방 직후 상황은 조선의 중요산업이라는 것이 모두 일본인 또는 조선총독부-일제의 소유인 실정이었다. 새로운 국가가 이를 국유 국영으로 접수하는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념적 잣대로 따지기 이전의 문제였다. 국유 국영이라는 단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개념으로 경제구상이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수립된 국가가 정비되고 난 이후 국유 국영의 자산을 민간불하로 전환할 것인지, 국유 국영 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여부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새로운 차원의 과제인 것이다. 즉 임정의 경제정책안이 국유·국영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두고 특정 이념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 경험을 아무 여과 없이 일제시대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당시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될 수 있다.

토지개혁 문제 역시 당시의 조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념적 잣대에 기울어지면 해방 당시에 지주들조차 토지개혁 흐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실제로 당시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민당도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유상매상 유상분배 원칙)을 주장했다. 즉 해방 당시는 지주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개혁 방식을 강조했을 뿐 토지개혁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당시의 현실적인 여론은 경자유전의 법칙에 따른 토지개혁이 압도적이었다. 굳이 좌우의 차이를 둔다면 토지개혁의 방식에 있었다. 토지개혁 방식을 둘러싼 '명분' 때문에 좌우합작이 실패했지만, 수확물 30%씩 5년간 농지대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남한의 유상분배 방식이나, 현물세 25% 납부를 규정한 북한 무상분배 방식이나 농민 부담의 측면에서는 모 아니면 도식으로 싸울 일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안 들 수 없는 것이다.

임정은 토지국유를 선언하면서 그 명분으로 전래의 토지공유제를 거론했다. 물론 토지공유제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관념적 의제(普天之下莫非王土)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명분은 친일의 명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지주층에게 정치적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토지개혁의 불가피함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그리고 국유·국영경제는 실제 운영에서 경제계획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 1945년 8월 28일자로 발표된 ‘재중경 한국독립당 제5차 대표자대회 선언’에서는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해서 균등사회의 행복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말에 열린 경제학자들의 토론회에서도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 사이의 이념적 편차를 떠나 경제계획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진보적 민족자본의 경영, 특히 사영을 통한 생산력 증진과 계급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공산당에 대해 한국민주당은 중요 대기업 외에는 평화산업을 민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공업건설 의견은 공산당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화답했다. 제헌헌법이 국유 국영을 규정한 것 역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자본주의의 유산을 안은 당시 한국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의 경제운영 책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 4. 대한민국임시정부-한국 보수의 원초적인 사상적 자양분

무릇 역사적 자산은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거듭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매년 때마다 활용되는 고정자산에 머물러 있다면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는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임정과 임시헌법은 이후 제헌헌법이 규정한 주권재민 원칙을 식민지 강점 하에서 처음으로 선언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항일운동에 나섰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한 사회의 보수세력이 지녀야 할 덕목은 국가와 민족을 앞세우는 차원을 넘어,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는 실천성과 리더십에 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경험을 안은 한국의 보수를 자임한다면 특히 역사 의식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임정과 그 역사적 자산은 한국 보수가 지녀야 할 원초적인 사상적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주권재민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이념의 편차를 아우르는 통합성, 식민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성을 가진 경제체제 구상, 평가의 여지는 있더라도 줄기차게 추진한 항일운동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 보수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극우와 일맥상통하는 맹목적 반복논리 외에 정체성이 취약한 한국의 극우가 보수로 통칭되고 식민사학을 거침없이 주장하면서 보수를 자임하는 심하게 왜곡된 분위기를 정화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는 방향타를 세우지 못하는 보수세력의 책임이다. 임정과 그 역사적 자산이 오늘에 갖는 의미가 새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㉞

—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 수행보고 —

# 이제는 큰 호흡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두엽  
본회 이사, 90주년 기념사업단장



▲ 임시정부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지난해 우리는 참담하고 고통스런 심정으로 '부끄러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위 뉴라이트 집단의 '선산(先山)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패륜적 망동에 분노를 삭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능멸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미군정에 있다고 민족사를 비하했고, 일제의 지배 때문에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해괴한 논리로 자기 역사를 건어찼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과 똑같은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독립운동의 한 집단'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체제'를 유



▲ KBS역사추적 '의친왕을 망명시켜라'

지하면서 27년을 항거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는 범죄행위가 소위 '건국 60년'의 광풍속에 백일하에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단>은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맞서 임시정부가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전국민에 알리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했습니다.

먼저, TV다큐멘터리와 TV다큐드라마를 제작/편성/방영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위상(位相)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4월 12일(일) 오후 9시 30분에 KBS 1TV '역사추적'을 통해 방영된 임정수립 90주년 기념특집 '의친왕을 망명시켜라'는, 1919년 당시 국제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의친왕 망명사건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온 임시정부의 특수공작활동을 재조명 했습니다.

일제는 임시정부를 상민들의 집단으로 격하시키려했으나, 구한말의 귀족 중 대표적 인물인 동농(東農) 김가진 선생의 망명에 이어 대한제국의 법통을 가진 의친왕 망명사건이 터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 KBS특별기획 '발굴추적 임정의 숨은 영웅들'

곤경에 처해야 했습니다. 한일합병의 폭력적 강제성이 만천하에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초기 임시정부의 치열하고 다양한 투쟁과 관련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의친왕 망명사건을 최초로 다룬 이 프로그램은 '역사추적'의 평균 시청률을 훨씬 상회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13일(월) 오후 11시 30분에는 KBS 1TV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특집-임정의 숨은 영웅들'이 방영되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이룡양행을 운영하면서 독립투쟁 운동에 크게 도움을 준 영국인 조지 쇼, 프랑스인으로서 한국을 지지한 한국친우회 회장 루이 마랭과 상해총영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비호한 앙리 윌든 등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에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들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역사학계에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제시대 당시에도 임시정부와 한민족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세력이 해외에 있었고, 그들이 경제적



▲ SBS특별기획 다큐드라마 '그 남자의 나라'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전시장

이해관계 없이도 고귀한 정신으로 한민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 이 프로그램은 임시 정부 90주년에 잘 맞는 특집 다큐멘터리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4월 14일(화) 오후 12시 40분에는 SBS TV를 통해 다큐드라마 '그 남자의 나라'가 방영되었습니다.

황국 신민화 정책에 동화되어 스스로 일본인을 자처했던 한 젊은이가 한민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 '사위어가는 독립운동의 불꽃을 되살려놓았던 극적인 순간'을 긴박하게 펼쳐지는 다큐드라마로 펼쳐내었습니다.

이봉창 의사의 독립투쟁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동아시아 작은 변방의 항거에서 끄집어내 세계사적인 흐름에 올려놓았던 빛나는 투쟁이었습니다.

편성시간대의 문제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지

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프로그램의 수준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받아서 8.15 광복절 기념특집으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뿌리'는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의 강령과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좌우합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요산업의 국유화, 무상교육, 무상치료, 남녀평등, 8시간 노동제 등 주요정책이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보아도 높은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90주년 기념사업단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는 전시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기획, 제작했습니다.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채의진 서각전

니다. 순회전시에서는 임시정부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 강령과 주요 정책의 내용, 임시정부의 미래국가상과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 등이 첨단 전시 기법으로 펼쳐졌습니다.

4월 11일(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본회 김자동 회장, 김양 국가보훈처장,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 김성식 국회의원 등이 함께하는 가운데 개막테이프를 끊은 후, 부산역광장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5월 19일(화)까지 야외 전시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문제(文齊) 채의진 선생의 서각전이 함께 선보였습니다.

백범을 비롯한 수많은 임정요인들,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유묵과 어록이 예술적 향기가 높은 서각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관람객들에게 그 분들의 우국충정을 숨결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본회 고문이기도한 문제(文齊) 채의진 선생은 36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교편을 잡다가 87년 한국미술대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셨고, 국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사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뿌리'는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1운동과 임시정부입니다.

민훈장 석류장을 받으신바 있습니다.

9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전시회와 동일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주제로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헌법정신(박태균, 서울대), 민주주의(김상봉, 전남대), 경제(조석곤, 상지대), 노동/사회/복지(홍성태, 상지대), 교육/문화(강내희, 중앙대)등 5개의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학계를 대표하는 진보적 중진/소장 학자들에 의해 진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홍윤기(동국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태인(경제평론가), 이영환(성공회대), 정일준(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금번 학술대회의 소중한 내용은 빠른 시간내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임시정부 9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는 두차례에 걸쳐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3월 1일(일) 오후 8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타이틀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기념음악



▲ '2009 겨레의 노래' 통일을 위한 대합창 공연모습



▲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90주년 기념 음악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공연 중 박윤초 명창의 공연

회는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공동주관으로 1천여 명의 관객이 참여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박윤초 명창이 판소리로 불러 이채를 띄었습니다. 세계적인 명문인 '나의 소원'은 판소리 단가로도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90주년 기념사업단은 향후 후속사업으로 '나의 소원'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매년 국립극장에서 무대에 올리는 '겨레의 노래'가 올해는 임시정부 9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되어 4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렸습니다.

1천 6백여 석의 관객이 지켜본 '2009 겨레의 노래'는 우리 음악의 힘과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다

양한 노래들이 선보였습니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단은 지난해 한시적 기구로 출발하여 총괄기획, 정부예산의 확보,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정산 및 평가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예산 확보전망조차 불투명하였고,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기업협찬 또한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본회 이사이신 공성진 국회의원님과 국가보훈처의 관심과 협조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제작을 한 TV유니온의 이원혁 사장과 N미디어의 강동길 사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전임 이찬희 사무처장과 신임 이일선 사무처장님, 헌신적으로 일해준 조영신 전문위원님과 김보성 전 단장님, 김동완, 김경진 간사의 노고는 잊지 않겠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김학민 이사님께도 특별한 고마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주)



2009년 3월 28일 산행은 제1기 독립정신답사단의 산행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의욕적으로 주최한 제1기 독립정신답사단은 대학생, 독립운동가 후손, 지도교수·교사, 취재 기자단 및 본회 임원으로 버스 3대에 분승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가 있는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따라서 11박 12일의 대장정을 다녀오면서 부터이다. 그 해 연말 답사단 행사를 회고하고, 한해를 평가하는 송년회에서 이번 답사로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우리들이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에 온 생명과 일생을 다 바치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조출하게 시작되어 어언 27회 산행을 맞이하고 있다.

노소동락(老少同樂)의 산행이라 동절기를 휴지로 하고, 3월 28일 우리들은 약속한 사직공원 (만남의 장소)에서 10시에 반가운 얼굴로 봄을 맞이하였다.

제3기 간도지방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단에 참여하셨던 이항중선생님(석주 이상룡선생의 증손자), 제1,3기에 참여하셨던 원로 서각가 구연당 채의진선생님, 빙인섭 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윤경자선생님(윤기섭 선생 장녀), 이일선 신입사무처장님, 김동완 간사, 삼사 이철민님(전문산악인), 산악회장 주세영, 뒷풀이 장소에서에서 김원규 선생님(광복군 후손), 이렇게 모두 9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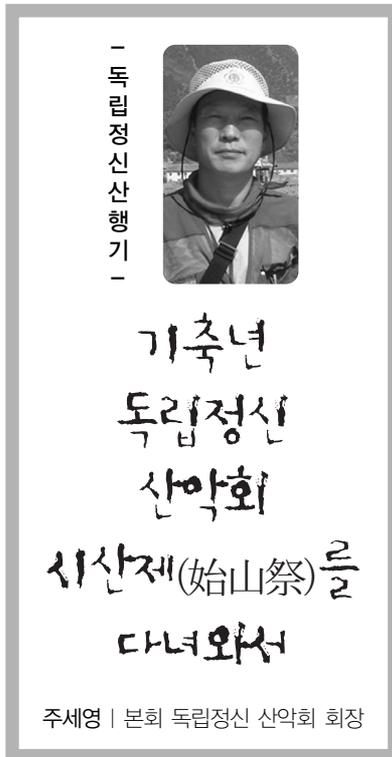
우리 일행은 산행에 앞서, 시산제를 모실 인왕산을 오르기 전에 사직공원 뒷편에 자리잡은 단군전(사당)에 들러 분향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임정기념사업회>가 주관할 올해의 모든 행사가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원 하면서 참배를 하였다.

그리고, 국사당을 지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선바위를 참배를 하고, 삼사님

의 안내로 새로운 등산로를 따라 인왕산 정상으로 향하였다.

여느 해와 달리 좀 더 정성을 다해 시산제를 거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경제 대란을 넘어 모





▲ 시산제 현장

두 건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 주년을 맞는 올 한해의 모든 일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한 정성들을 모아 기원제를 올렸다. 초 현에는 기념 서각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구연당선생님, 아현에는 99칸짜리 임청각의 주인이신 이항중 선생님 그리고, 사무처를 대표하여 빙인섭 상임이사님이 중헌을 하였다.

시산제 축문은 <독립정신 산악회장>으로서 올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90주년의 다양한 모든 행사, 무사 산행, 회원 및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수도 서울의 우백호로서의 위상을 지닌 인왕산을 찾아온 많은

이웃들과 함께 음복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이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국동 조계사 동네 묵은지 집에서 우리들끼리 덕담을 나누면서 우리들

의 즐거운 산행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뒷 풀이를 하고 다음번 산행에서는 더 좋은 산행이 되기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항상 먼 상주에서 아침 첫차로 오셔서 우리 산행을 빛내주시는 구연당 선생님과 행사가 겹쳐 뒤늦게 일부러 뒷자리에 참석하셔서 맛있는 식사를 찬조하여 주신 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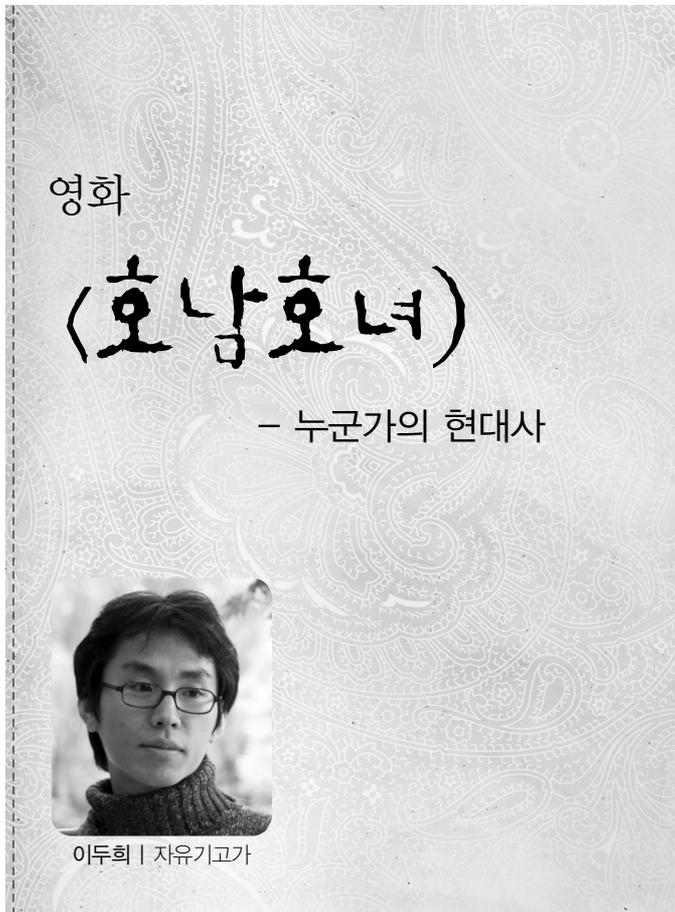
규 선생께 지면을 빌려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 <독립정신 답사단>이여! 산악회원들이여! 만나자. 오르자. 대화하자. @

“

시산제 축문은  
<독립정신 산악회장>으로서  
올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90주년의 다양한  
모든 행사, 무사 산행, 회원 및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



**1947년 2월 28일**, 타이베이 시내. 거리의 버스와 전차가 성난 시민들의 무리에 의해 세워진다. ‘당신은 어디서 왔지?’, ‘이 녀석도 내지인이 틀림없어.’ 미처 대답도 하지 못하는 주인공에게 날이 선 낫이 내려치려는 찰나, 가까스로 그의 동료가 말한다. ‘그는 농아요. 어릴 적부터 귀머거리란 말이요.’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아직 떨리는 가슴을 치며 그날의 기억을 몸짓으로 말한다. 영화 <비정성시>(1989)의 중반. 일본 패망 후 대만에 들어선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이 일으킨 폭동을 그리는 한 장면이다.



◀ 남편의 죽음에 절규하는  
치양 비유

대만 감독 허우 샤오시엔은 <비정성시>를 시작으로 대만의 현대사를 소재로 하는 일련의 역사물을 90년대에 만들어냈다. 감독의 필모그래피 안에서 이 현대사 시리즈들은 그가 이전에 만들었던 자전적인 성장기 영화들과 이후 만들게 되는 동시대 대만의 풍경을 다루는 영화들 사이에 있다. 이 과정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과 현대의 젊은이들을 잇는 가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세대' 대만의 역사를 우회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앞서 말한 <비정성시>가 귀머거리 주인공을 중심으로 대만의 격변기를 차분히 그려내고 있다면, <희몽인생>(1993)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전통인형극의 장인 티 리엔루의 전기적인 이야기로 극적인 재연과 다큐멘터리적인 인터뷰를 결합하여 서술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영화 <호남호녀>(1995)는 이 현대사 시리즈의 일단락을 맺는 작품이자 과도기적인 기획으로서 대만의 과거와 현대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병치시키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호남호녀>의 두 주인공은 현대를 살고 있는 호스티스 출신의 극중 배우 리양 칭과 1940년대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실존 인물 치양 비유이다. 여기서 리양 칭은 현재 촬영 중인 영화 속에서 치양 비유의 삶을 연기하게 된다.

치양 비유는 일제 말기에 의학도인 남편을 따라서 대륙으로 건너가 독립군에 가담했다. 신혼생활이랄 것도 없었고 낳은 아이들마저 어딘가로 입양시켜야 했지만, 결국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대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국공합작이 깨어진 중국 본토에서는 내전이 시작되었고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같은 혼

란을 겪는다. 결국 1949년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망명하고, 부부는 좌익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구금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며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이 구축되자 모든 혼란과 함께 그녀의 희망은 사라졌다. 그녀는 석방되었지만 남편은 총살당했다.

극중 극 속에서 치앙 비유의 역할을 맡은 배우 리양 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토키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잃어버린 자신의 일기장을 누군가가 팩스로 한 장씩 보내오면서,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들춰지는 호스티스 시절의 과거를 다시 만난다. 또한 그녀와 형부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언니는 더욱 그녀의 생활을 난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영화의 촬영은 계속되고, 이제 그녀는 잊고 싶었던 자신의 상처 - 사랑했던 연인의 죽음을 다시 한 번 마주하기로 한다.

사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이양된 대만의 역사는 피식민지 국가로서 근대화와 수탈을 동시에 겪었던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의 황민화정책을 직접 경험한 나라중 하나이다. 물론 민족적 배경이야 전혀 다르겠지만, 종전 후 냉전체제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사회적 부작용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점도 또한 비슷하다. 정치군사적 '대치상태'가 체제 유지의 바탕이 되는 국가이기에, 종종 대만영화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게 되는 꼭 반갑다고는 할 수 없는 풍경도 찾아볼 수가 있다.

영화 <호남호녀>의 이야기는 역시 감독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의 상처를 성장의 통증'에 실어 보내는 성장기 영화의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여배우 서기가 연기하는 리양 칭과 치앙 비유라는 두 인물은 결국 대만의 현대사라는 맥락 속에서 상처받는 이들의 모습이다. 극중극 속에서 연인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개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성장의 진통으로 승화해냄으로써 둘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형식이 말하는 바, 리양 칭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치앙 비유라는 실존 인물의 역할을 재연한다는 설정으로써 영화라는 허구를 통해서 경험하는 역사적 진실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즉, 허우 샤오시엔 감독은 가짜 속의 진짜 혹은 허구 속의 진실을 말하는 예술가의 입지를 영화 안에서 재확인해 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영화가 관객에게 조금 보기 편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구성과 그 이야기들의 배경을 쉽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관점으로 서술된 역사는 자칫 이념과 그 필연성보다는 자연발생적인 우연에만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 속에서 한 배우의 눈에 비친 항일운동가의 모습이 결코 가볍게 취급된다고 할 수 없는 까닭은 어떠한 우연일지라도 과거의 역사가 현대의 주인공에게 지금 다시 반복되고 체험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역사는 그렇게도 시



얼핏 진군가였을 것 같은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을까하면서도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나  
 혹은 관객 저마다의 기억 속에서  
 어디선가 이미 보았었을 것만 같은  
 그런 서정적이고  
 향수어린 풍경을 보는 것이다.

대를 넘어 개인 안에서 지속되고 재생될 수 있는 것이기에 말이다.

사실 허우 샤오시엔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씩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이 있다. <호남호녀>에서  
 도 어느 한 장면, 어느 마을 어귀처럼 보이는 굽은 길가에 커다란 한 그루 나무 아래로 떨찌감치 한 무리의  
 자원군들이 붓짐을 짊어지고 길을 걷는 장면이 있다. 얼핏 진군가였을 것 같은 그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을  
 까하면서도 감독의 다른 영화에서나 혹은 관객 저마다의 기억 속에서 어디선가 이미 보았었을 것만 같은  
 그런 서정적이고 향수어린 풍경을 보는 것이다. 아마도 이 영화가 가지는 설득력은 어떻게 그 단편적인 이  
 미지가 영화 안에서 기능하는 가를 이해하는 가에 달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자비한 현대사를 살아  
 왔던 인물들에게 가지게 되는, 표정은 없지만 따뜻한 관심. 그것은 동시에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거리  
 감마저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참고로 허우 샤오시엔의 감독의 성장기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연연풍진>(1984)이 있으며, 2000  
 년대 이후 새롭게 변해가는 그의 영화적 접근을 보여주는 영화로서 <밀레니엄 맘보>(2001)를 꼽을 수 있  
 을 것이다. 혹은 같은 대만출신의 감독 이안의 <색, 계>(2007)를 통해서 그려지는 항일운동기의 또 다른  
 중국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다. 📺

## 이 시대 진정한 독립정신의 파수꾼

-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서초구의 한 잡지사 사무실. 싱그러운 봄 향기가 득 담은 차 한 잔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임현영 선생님과 함께 마주앉았다. 선생님을 만나러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과연 무슨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계속 걱정을 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서로 이질적인 학문을 전공한 우리가 '독립정신'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이러한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매우 반가워하시며 편안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다.

우선 민족문화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념적 시각에 입각한 또 하나의 역사바로세우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반드시 편찬해야만 하는 역사적 당위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출간될 예정인지를 여쭙어보았다.



조영빈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조정희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역사적으로 청산하고 학문적으로 평가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오늘과 미래의 민족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 친일인명사전은 금년 8월경에 출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시대 통치사로 전반에 대해서는 3~4년 후를 목표로 자료 수집,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역설적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잔재 청산이 완전히 되었다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잘못은 반드시 밝혀서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어느 방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옳은 방향, 옳은 생각은 통합합니다. 경제, 정치, 문학, 수학, 역사 등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이제껏 우리 국민들이 겪은 고생을 겪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편찬이 법률적인 처단이나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역사적으로 청산하고 학문적으로 평가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오늘과 미래의 민족사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1941년 1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 정치이념 때문에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너무 식민의식에 젖어있습니다. 일본과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며 열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 또는 일종의 노예의식의 표출로 보여 집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지역으로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서 돌아왔습니까? 성당, 왕궁, 공원, 박물관, 물론 그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그 나라 학생들은 자기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독립정신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유럽의 가치관과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지 못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 사회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일파 청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셨다.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일제치하에 살면서 겪었던 갖은 수모와 설움, 그 모든 것들을 겪어왔던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울컥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해진다고 하시는 선생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이 맺혀있었다. 마지막으로 매년 여름 중국, 러시아 등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로 답사를 떠나는「독립정신 답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독립정신이 무엇인지를 여쭙었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지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네요. 독립투사들의 열악한 생활 현장도 몸소 체험하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들이 꿈꾸어왔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도 생각해보고, 과연 현재 우리나라는 그분들이 꿈꾸어왔던 그런 나라인지를 한번 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의 독립정신도 배우면서요. 한 국민국가가 다수의 자기 국민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바로 독립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외세로부터의 독립, 개인적으로는 자기 권리를 억압하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진정한 독립정신이겠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독립정신을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한 번 반문해 보자. 또 다시 우리가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과거 우리 선열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조국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반문하셨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는가?”

인터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선생님께서 마지막 반문하셨던 말씀을 몇 번이고 되 뇌이였다. “지금 다시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겠는가?” 한 시대와 삶의 자취를 사실(史實)의 저울에 올려 놓고 가감 없이 되돌아보는 게 역사다. 지난 잘못된 역사의 반성과 청산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꾸짖는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 진정한 독립정신의 파수꾼이셨다. (㉠)



정승임  
이화여대 사회학과



홍용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선생을 임정 사무실로 초대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행사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준비하는 사무실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만남 덕분인지 이번엔 선생이 먼저 우릴 알아보셨다.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참 그럴 듯하네.”

사무실 앞에 붙여진 행사 홍보 포스터를 보고 꽤 흡족하신 모양이다. 인터뷰 말미에 포스터 한 장 챙겨주면 고맙겠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다.

“선생님, 지난주에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다녀왔는데요.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부분을 접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권’을 대화 주제로 정하는 건 쉽지 않았다.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라 식상할 수 있고 뻔한 이야기를 나누다 공허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전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더불어 지난 2월 용산참사, 그리고 최근 정부의 인권위 축소결정을 지켜보면서 선생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 백범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III)

학성포럼주최권진정승임홍용희



옛날부터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아니야.  
 20세기만 해도 인권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 생각했지.  
 경제를 위한답시고 환경도 파괴하고 사람들은 수면시간을 쪼개가며 일만 한 거야.  
 하지만 많은 걸 희생해도 남는 건 없었어.  
 중요한 건 인간다운 삶이었으니깐.

“인권이라, 쉽지 않은 주제인데..... 유엔은 아직까지 인권을 정의하지 않았네.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에 따라 인권의 내용도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만큼 인권은 광범위한 요소를 담고 있는 걸세.”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갑자기 대화 주제를 잘못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도 정의내리지 않은 인권을 가지고 대화를 진행한다는 게 어찌면 무리한 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졌다.

“선생님, 인권이 왜 중요한가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지. 하지만 역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인권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를 말이지. 옛날부터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건 아니야. 20세기만 해도 인권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 생각했지. 경제를 위한답시고 환경도 파괴하고 사람들은 수면시간을 쪼개가며 일만 한 거야. 하지만 많은 걸 희생해도 남는 건 없었어. 중요한 건 인간다운 삶이었으니깐.”

그랬다. 경제성장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인권이 인류의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은 현재 우리 인권의 위치를 말해준다

인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선생의 생각을 물었다.

“천부인권이라고 하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로서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 여기서 핵심은 ‘모든 인간’이라는 걸세.”

선생은 ‘모든 인간’을 강조하시며 용산참사 이야기를 꺼내셨다.

“용산참사는 이 시대의 아픔이야. 용산 철거민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얼마 없었어. 그러다 일이 터진 거지.”

선생은 용산 철거민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6명의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선생의 눈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미네르바 구속을 두고 인권의 틀에서 접해도 될 문제냐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네르바 구속과 인권침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권의 내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걸세. 1900년대 사람들과 2000년대 사람들이 보장받으려는 인권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미네르바 구속도 그렇게 바라봐야 할 문제야. 인터넷 상에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자유로운 시대인 만큼 상식적인 틀 안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지.”

선생을 역까지 배웅하며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선생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  
선생이 그리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권위 축소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2001년에 설립된 단체 인데요.”

“그럼 알고 말고. 그 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 나의 조국이 훌륭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일세. 근데 얼마 전에 그 조직의 규모를 줄인다는 말이 들리던데.....”

선생 말씀처럼 최근 정부는 인권위 조직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인권위 인원 21% 축소를 결정했다.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자 등 인권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국이고 우리나라 인권위를 본받고자 한국을 방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씁쓸하군, 그래.”

시계는 어느덧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가뭄으로 애태웠던 강원도 주민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 봄비처럼, 좋은 뉴스가 세상에 활기를 불어 넣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며 선생은 자리를 정리하였다. 안 좋은 뉴스로 얼룩진 사회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선생의 마음이 전해졌다.

선생을 역까지 배웅하며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선생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다. 선생이 그리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㉞



## 석오 이동녕 선생 69주기 추모식 열려

독립 운동가 석오 이동녕 선생의 69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13일 오후 2시 효창공원 묘전에서 열렸다.

이 날 추모식은 본회 김자동 회장, 김양 국가보훈처장,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광복회원과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태봉 묘동교회 목사의 추모기도,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 낭독 등의 식순으로 치러졌다.

이동녕 선생은 1869년 충남 천원에서 출생하여 1906년 만주 북간도 용정촌으로 망명, 이상설·여준 등과 최초의 사립학교인 서전서숙을 설립했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뒤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로 망명해 이회영 등과 함께 한국인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하고, 신흥무관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며 조국 독립에 헌신했다. 1919년부터는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등을 지내며 임시정부에 투신하다 1940년 72세를 일기로 사천성 기강 임시정부 청사에서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을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71주기 추모식 열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순국 71주기 추모식이 지난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강남구 신사동의 도산공원에서 열렸다.

이 날 추모식에는 본회 김자동 회장, 김양 국가보훈처장,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주독립과 국권회복을 염원한 고인의 뜻을 기렸다.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났다. 1897년 독립협회에 가입,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국민의 자각을 호소했다. 1906년에는 신민회를 결성해 구국운동을 전개하고, 191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파리강화회의에 국민회 대표 파견을 계획하다 임시정부 내무총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힘쓰다 1938년 순국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



안중근의사 순국 기념일(3월 26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5일, 안중근의사 의거·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 및 학술토론회가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과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의 추모사로 시작됐으며 민족문제연구소 임현영 소장의 선포문 낭독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 김원웅 공동대표는 “우리 겨레 모두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소서”라며 안중근의사의 의거순국 100주년을 맞은 사회와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정신과 사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계각층 사회단체 대표 및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홍식 대표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대표와 취재진이 참여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독립정신」 산행소식



지난 3월 28일, 독립정신 산악회가 인왕산으로 2009년 첫번째 산행을 다녀왔다. 주세영 산악회장을 비롯해 회원 7명이 참여했다. 무사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리는 등 회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행을 즐겼다. 다음 산행 목적지는 고창 선운사이다. 선운사에서 산사체험을 원하는 회원은 5월 16일(토) 오후 2시 30분까지 지하철 사당역 1번 출구로 오면 된다. 본회 이정재 이사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서울을 떠나 봄날의 여유를 만끽하는 산행인 만큼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산악회장 주세영 : 016-9294-7858 , 이정재 이사 : 011-9415-5983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배설 선생 서거 100주년 학술대회 열려

구한 말 최대의 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 독립을 위해 힘썼던 언론인 배설 선생의 서거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4월 2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 날 학술대회의 주제는 선생의 유언을 따와, '나는 죽더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동포를 구하라' 였다. 학술대회는 김양 국가보훈처장,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했고, 천상기 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선생은 1872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트리분지의 서울 특파원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04년에 선생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나라의 운명이 기울던 시기에 민족진영의 구심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선생의 본명은 어니스트 토머스 배텔이었지만 고종황제에게서 배설(裴說)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이다. 일제의 압력을 받은 서울 주재 영국 총영사가 선생을 재판에 회부, 금고형을 받게 되고, 1909년 고문후유증으로 서거했다. 그 후 『대한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전락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윤기섭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및 전기 출판회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에 규운 윤기섭 선생 공훈 선양 학술강연회 및 전기 출판회가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1908년 청년학우회를 조직하고 민중계몽과 민권신장운동에 앞장섰던 규운 윤기섭 선생은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학술강연과 서평은 단국대 한시준 교수가 맡았으며 김일진 선생이 '남촌', '그리운 금강산'을 축가로 불렀다. 독립군가합창단이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압록강 행진곡을 선사했으며 윤기섭 선생의 장녀인 윤경자씨가 유족대표로 인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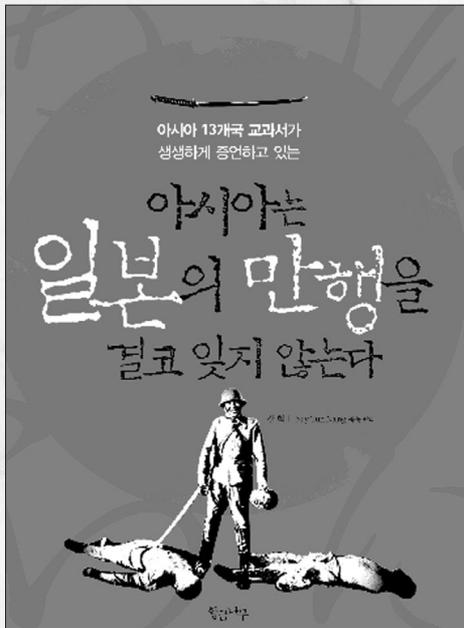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만평



# 아시아는 일본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는다

-13개국 교과서가 증언하는 일본의 아시아 침탈사!



##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아픈 역사에 왜 집착하는가 묻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지난 역사와 화해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집요할 정도로 묻고 있다.

일본은 과연 진정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 있는가?

아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 것일까?

알고 있다면 지금 일본 내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심각한 교훈을 준다.

미래를 설계하고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리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망각해서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일본 파시스트들의 행위는 침탈이었고, 만행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반복은 바로 무관심과 정당한 평가 그리고 대비가 없을 때 이뤄진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일본 파시스트에 침략 당한 아시아 각국 교과서를 조망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고,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려는 자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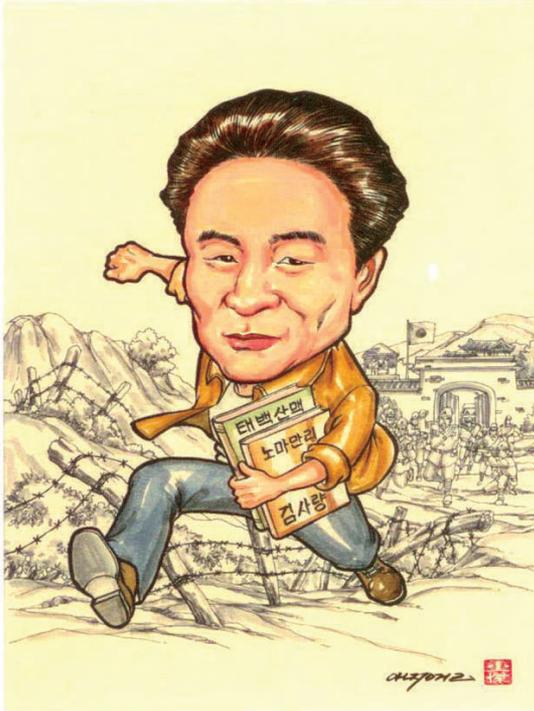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3,4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사유장환회)김/영	10,000	10,000	문재선		20,000	이상배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공성진	30,000	30,000	민항선	10,000		이신재	30,000	30,000	조회환	10,000	10,000
곽태원	30,000	3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영국	1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영춘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채의진	10,000	10,000
김동완	10,000	1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동현	2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용위	3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함세웅	30,000	
김선군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응국	5,000	5,000	허석현	5,000	5,000
김숙정	50,000	50,000	성인제(약주)	1,200,000		이일선		3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영림	30,000	30,000	송만섭	50,000		이재선	5,000	5,000	황용만	5,000	5,000
김용덕	20,000	1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정재	50,000		◆ 2009년 특별회비		
김원규	10,000	10,000	신영언	1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김원우	50,000	5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창복	30,000	30,000	김선현	1,000,000	
김 위	20,000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학효	5,000	5,000	김정애	70,000	
김위현	50,000	50,000	안영찬	5,000	5,000	이향중	30,000	30,000	이두엽	1,500,000	2,000,000
김지동	100,000	100,000	엄근남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이찬희	300,000	
김재철	200,000	100,000	엄기남	50,000	50,000	이화순	30,000	30,000	학술회의모금합		72,000
김정욱	50,000	50,000	엄기창	10,000		인순창	30,000	30,000	주오토	6,000,000	6,000,000
김중숙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장봉훈	30,000	30,000	정상무		741,300
김진경	5,000	5,000	오은주	20,000	20,000	장은기	20,000	20,000	정해구		300,000
김진모	20,000	20,000	오정수	20,000	20,000	장 흥	20,000	20,000	박희주		300,000
김진영	10,000	10,000	우상호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 2009년 기념관 회비납부		
김진현	30,000	30,000	유원목		2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충환	5,000	5,000	윤경자	60,000		정환기	10,000	10,000	채의진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윤한욱	10,000	10,000	조기식	10,000	10,000	김정애	30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규중	30,000	30,000	조명숙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영빈	5,000				
노영택		20,000	이병운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노용래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용환	30,000	3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조인형	10,000	10,000			

항일



김 사랑 (1914~1950)



1931년 평양고보 시절 조선 각지에서 일어난 항일투쟁에 호응하여 동맹휴학을 벌이다 퇴교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대학 독문학과에 들어갔다.

유학 시절 첫 작품 <토성량>을 발표했고,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가담했으며 사상불온으로 일제경찰에 검거되었다. 이후 <기자림> <산의 신들> 등 조선농촌의 참담한 실상을 생생히 그린 일어소설을 냈으며 1940년에 쓴 <빛 속에는> 일본의 '아쿠타가와와상(芥川賞)' 후보에까지 올랐다. 1943년에는 갑신정변의 격동기 때 난리를 피하여 화전민이 된 개화세력들이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해나간다는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국민문학>에 연재했다. 1945년 5월 노천명과 함께 국민총력조선연맹 병사 후원부 파견으로 '재지반도 출신 학도병위문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갔으나 일본군의 봉쇄선을 뚫고 조선의용군의 항일 근거지인 태항산 남장촌에 도착하여 의용군에 가담했다. 이때 겪었던 술한 가슴 벅찬 감격을 자서전인 <노마만리>를 통해 형상화했다.

친일

장혁주 (1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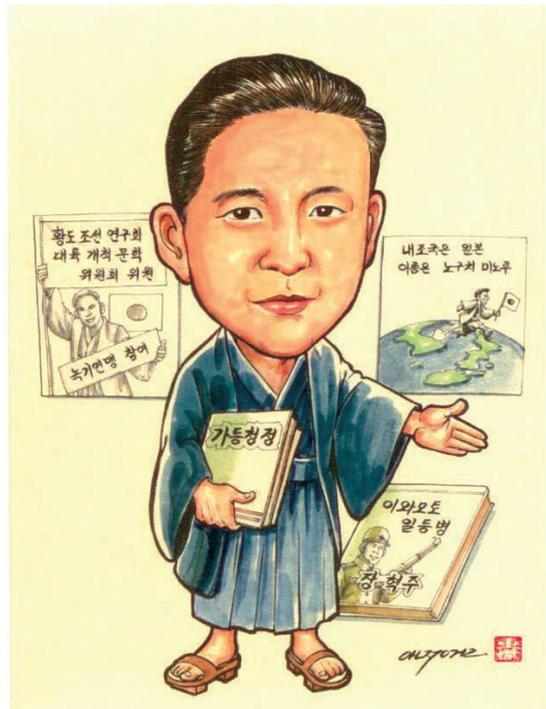
창씨명 : 노구치 미노루(野口稔)

1926년 대구고등보통학교를 마친 뒤 청송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2년 <개조>(일본잡지)의 현상 문예에 일어소설 <아귀도>가 입선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문필활동을 하던 그는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활동을 시작했다.

임진왜란 때 침략한 왜장을 미화한 <가등청정>과 지원병 제도를 고취, 선전하는 <이와모토 일등병>을 발표하였고 1942년 동경에서 일본문학보국회의 황도조선연구회 위원과 대륙개척문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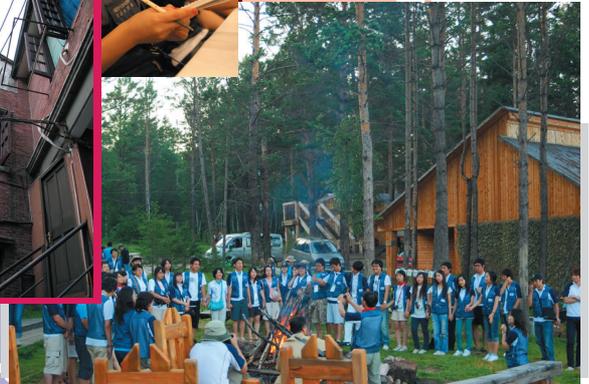
1945년 간도조선인특설부대를 작품화하기 위해 화북·열하지구를 취재 여행하기도 했다. 해방 후 6.25 전쟁을 취재한 <오호 조선>을 출간하고 일본에 영구 귀화했다. 김사랑과 장혁주 모두 일러작가였지만 "김사랑은 고개를 쳐들고 나아갔으며, 장혁주는 타협 항복하고 배신한 인물"이라고 평가되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제 5기 「독립정신」 답사단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를 찾아서

상해-남경-가흥-항주-장사-계림-유주-중경-성도



2009. 07. 10. 금 - 2009. 07. 19. 일 (8박 10일)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대학생 65명**

선발대상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한 남녀학생**

선발우대 **독립유공자 후손, 역사관련학과**

**문화예술관련 기능보유자**

참가비 : 학생 70만원(비자비등 일체 경비 포함)

접수기간 : 5월 04일 (월) ~ 5월 22일 (금)

신청서 접수 : 본회 홈페이지 [www.kopogo.com](http://www.kopogo.com)

면접심사 : 5월 29일(금), 30일(토)

선발발표 : 6월 5일 (금) 본회 홈페이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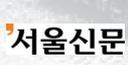
선발자 워크숍 : 6월 29일 (월) ~ 30(화) / 1박2일

-미참석자는 포기로 간주, 예비후보 선발

기타 : 세부일정 등 기타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요망

참가자 답사 이수증 수여

주최: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훈처  서울신문